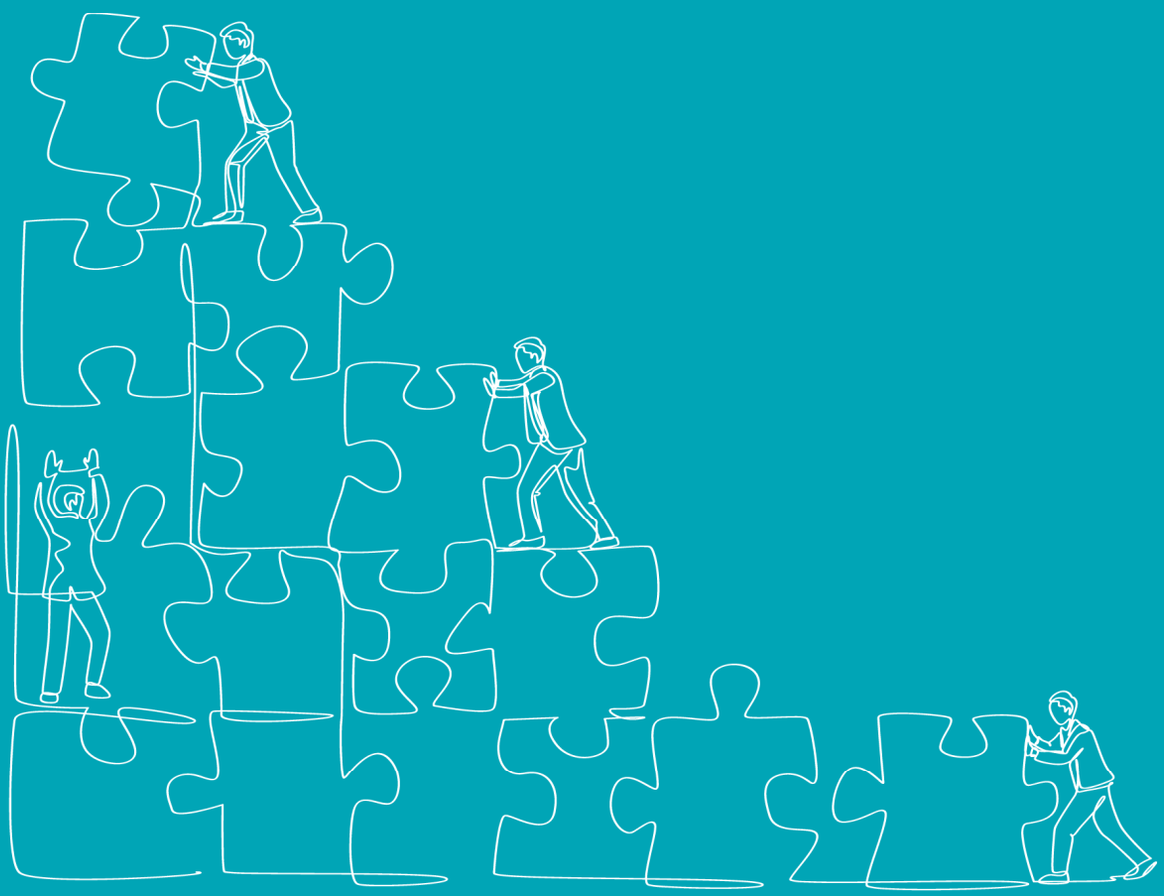
상상국어 임팩트 원

상승선 상승모택

上昇線

상상. 이승모T와 함께하는
성적 상승의 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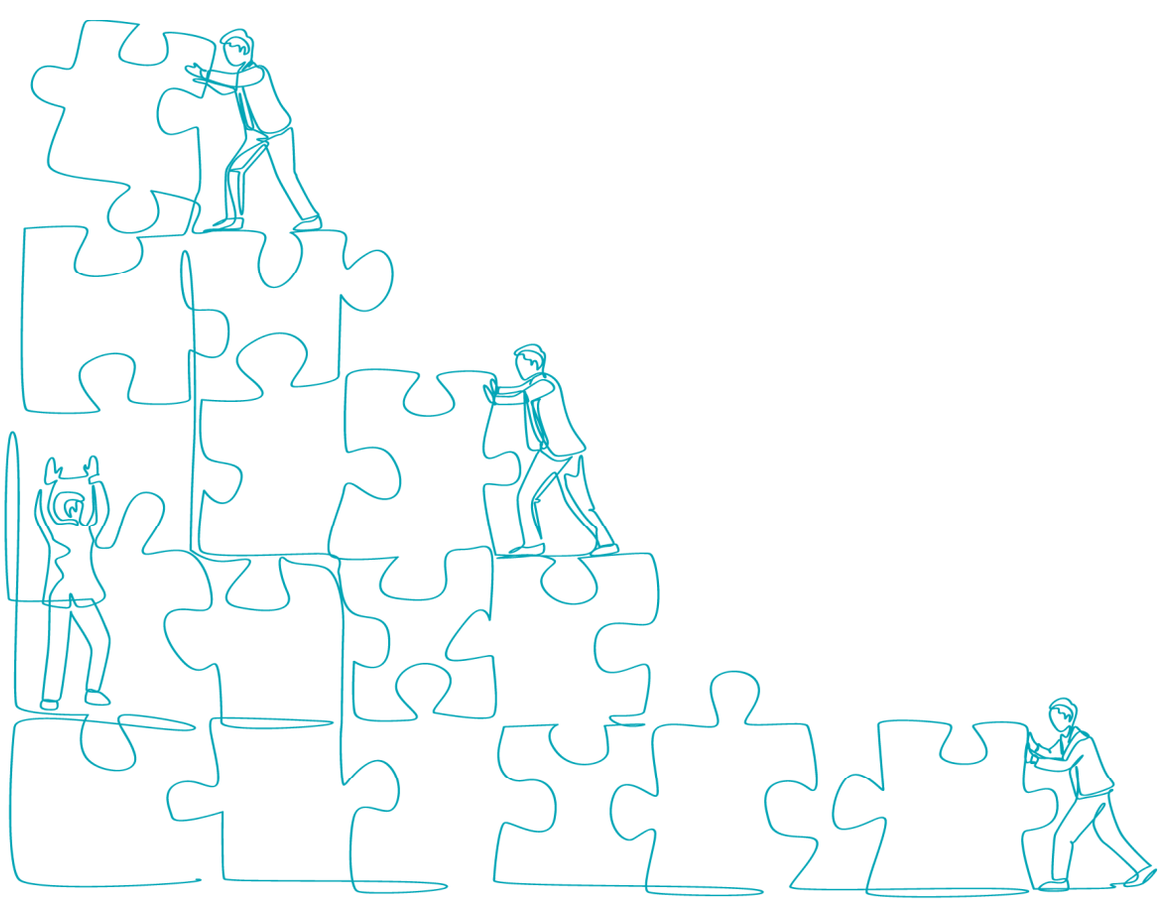
3-4

상상국어 임팩트 원

상상 이승모택 상승선

上昇線

상상, 이승모T와 함께하는
성적 상승의 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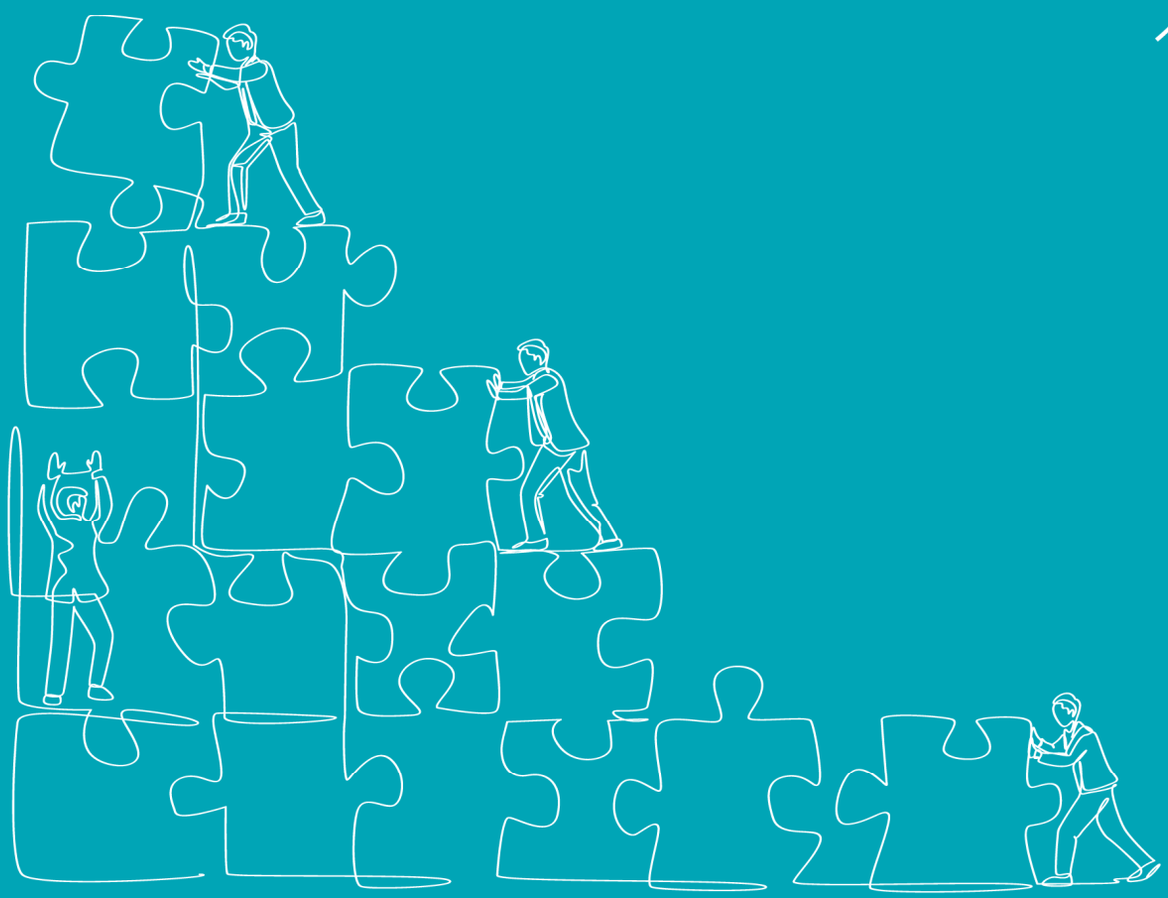


3-4

上昇線

상모택

이승선



3-4

상상, 이승모T와 함께하는
성적 상승의 길

[상상 모의고사 임팩트 원 - 상승선]

시즌 3 제4차 모의고사

[선별 세트]

[22~27] 정지용, 오월 소식(연계), 고정희, 땅의 사람들 1 - 서시(비연계), 이종휘, 함해당기(비연계)



임팩트 원 해설지 활용법

'임팩트 원'은 '상상'과 '이승모T'가 생각하는 이번 모의고사에서 가장 유의미한 세트, 내지는 되짚어볼 만한 세트를 선별한 것입니다. '상상' 역시 사설이기에, 전 문항을 모두 기출처럼 분석할 필요는 없으나, 적어도 이것만큼은 꼭 가져가라는 의도로 만든 것입니다. 즉 모의고사를 풀고, 나름의 오답을 한 이후, 가볍게 읽어보면서 가져갈 것들을 가져가시면 됩니다. 임팩트 원 해설지는 총 두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01 | '나'는 '이'렇게 '풀'었다(실전)

- 쉽게 말해 제가 실전에서 이 문제를 처음 봤을 때 풀었던 방식과 사고를 위주로 설명합니다. 실전적인 사고를 기반으로 설명하기에, 해설지의 사고와 미묘하게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그냥 국어를 잘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푼다라는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듯합니다.~~(그래도 제가 여러분들보다는 잘 읽겠지요?)~~ 특히 본인이 국어를 잘하는 학생이라면, 여기서 얻어갈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

02 | '나'는 '이'렇게 '공'부했다.(사후적 학습)

- 실전과 사후적 학습은 항상 분리되어야 합니다. 사후적으로 공부할 때 챙겨갈 것들을 정리한 것입니다. 연계 학습부터, 지문을 읽는 방식 등등 이런 모든 것들이 여기에서 정리가 됩니다. 이걸 보면서 '내가 실전에서 이걸 어떻게 해?'라고 받아들이시면 이건 해설지의 의도를 왜곡한 것입니다. 이것이 실전에서 가능한 학생들도 있겠지만, 가능하지 않더라도 이것들은 꼭 사후적으로 공부하면 추후 학습에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쓴 해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03 | 임팩트 원은 해설 강의 역시 상상 국어 유튜브에 제공됩니다.

해설 강의와 겹치는 내용이 있겠으나, 해설 강의에서 다 담지 못하는 내용을 이 해설지에 담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 해설 강의는 간결하게 필요한 것들을 집중해서 말하는 성격이라면, 이것은 얻어갈 것을 싹 다 털어간다는 생각으로 읽어보시면 됩니다.

04 | 해설의 가독성과 재미를 위해 약간의 드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건 가볍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소한 것일지라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루하루 관성이 아닌 정성으로.

안녕하세요. 저는 국어를 가르치는 이승모입니다.



01 | '나'는 '이'렇게 '풀'었다

이번 주도 수필 복합입니다. 사실 상상에서 원래 문학을 현몽쌍룡기 or 수필 복합 중에 선택하라고 하셨는데, 현몽쌍룡기를 선정해 준 의도가 상당히 궁금합니다. 일단 앞부분의 줄거리에 '첫날밤을 미루어 달라'를 보자마자 제 눈을 의심하긴 했거든요. 그리고 〈중략〉 이후의 지문 후반부를 보면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 수 없으나(모를 리가...), ㉤에서 오늘은 가히 그냥 넘어가진 못하겠소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순간적으로 아! 이거 재미있게 얘기할 수 있겠다싶어서 하려다가, 재미가 다가 아니니까... 아깝지만(?) 저는 수필 복합으로 택했습니다. 기존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6평 대비로 이것저것 하는 것보다 그냥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도 있지만, 사실 상상이 수필 복합을 잘 냅니다. 특히 수필 문제를 정말 잘 냅니다. 무슨 말이냐면, 24번, 27번이 너무 괜찮아서 제가 차마 이걸 포기할 수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딱 하나의 바람이 있다면, 6평 대비로 어쨌든 수필 복합 열심히 했으니까, 임팩트 원을 보시는 우리 학생분들이 6평 때 수필 복합만큼은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지나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시간도 늘어지지 않아서 시험지 운영상의 이득을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이번 주 역시 나는 이렇게 공부했다는 없습니다. 연계 작품인 오월 소식은 바로 나는 이렇게 풀었다에서 설명할 거고요.(연계 공부 확인차!) 다른 지문들도 바로 설명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 오월 소식은 연계입니다. 저는 안다는 얘깁니다. 사실 여러분들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나) 지문으로 갔습니다. 저는 그냥 읽었지만, 여러분들은 〈보기〉를 읽고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보기〉를 먼저 보든 나중에 보든 순서는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되지만, 〈보기〉를 읽을 것이면 제대로 읽고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하나 더 첨언하면, 〈보기〉에 '선생님'의 발화가 나오면... 선생님 말씀 제발 잘 들으세요. 특히 언매러들 아시겠지만, 〈학습활동〉에 '선생님' 나오면 이거 잘 읽어야 되는 거 아시죠. 항상 선생님 말씀을 잘 듣자! 오늘 역시도 수필에 대해 열심히 얘기할 겁니닫. 늘 말씀드리지만, 수필은 무조건 주제를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6평 전이니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수필은 사실, 어렵지 않은 내용을 어렵게 쓴 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끝나고 차분히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시험장에서는 얘가 참 잘 안 읽힐 수 있다는 얘깁니다. 우린 평소에 이런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낯선 거죠. 그래서 초반에 눌러 읽다가 후반부로 갈수록 뭉개 읽는 학생들이 간혹 있는데, 큰일 납니다. 수필은 뒤로 갈수록 잘 읽어야 합니다. 하고 싶은 말, 결국 주제는 뒤에 나옵니다. 오늘도 그런 관점으로 (다) 지문을 접근해 볼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다) 지문 어떻게 실전에서 읽었는지, 본인과 비교하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가), (나)를 읽고 22, 23, 25, 26번을 바로 칠 수 있고, (다)를 읽고 24, 27번을 풀 수 있으나, 설명할 때는 가독성을 위해 (가)~(다) 한꺼번에 설명하고 바로 문제를 풀러 가겠습니다.

(가)
오동나무 꽃으로 불 밝힌 이곳 첫 여름이 그립지 아니한가?
어린 나그네 꿈이 시시로 파랑새가 되어 오려니.
나무 밑으로 가나 책상 턱에 이마를 고일 때나,
네가 남기고 간 기억만이 소곤소곤거리는구나.
- 항상 시는 정서 위주로 파악하면서 읽어주면 됩니다. 다만 저는 여러분들이 이 시를 알 거라고 가정하겠습니다.(연계니까요.) 효율을 위해 연계 설명만 하겠습니다. 제목이 오월 소식입니다. 일본 유학을 하던 작가가 강화도에 있는 여동생에게 오랜만에 안부를 묻는 소식이 왔습니다. 1연은 그리움입니다.

모처럼 만에 날아온 소식에 반가운 마음이 울렁거리어
가여운 글자마다 먼 황해가 남실거리나니.
- 네. 모처럼 날아온 소식이니 반갑고 설렙니다.

……나는 갈매기 같은 종선*을 한창 치달리고 있다……
- 네. 배를 치달리고 있다. 뭐 쉽게 말해 달려가고 싶다. 내지는 마음만은 너에게로 달려간다. 정도일 겁니다.

쾌활한 오월 넥타이가 내처 난데없는 순풍이 되어,
하늘과 딱 닿은 푸른 물결 위에 솟은,
외따른 섬 로맨틱을 찾아갈까나.
- 잔나비의 노래 외딴섬, 로맨틱 아십니까. 이걸 모티프로 한 겁니다. 아무튼 역시 찾아가고 싶은 겁니다. 왜 섬인지는 아시겠지요? 여동생이 강화도에 있어서 그런 겁니다. 심지어 그 섬은 낭만적인 공간일 것 같나 봅니다.

일본 말과 아라비아 글씨를 가르치러 간
쬐그만 이 페스탈로치*야, 꾀꼬리 같은 선생님이야,
날마다 밤마다 섬 둘레가 근심스런 풍랑에 씹히는가 하노니,
은은히 밀려오는 듯 머얼리 우는 오르간 소리……
- 여동생이 선생님인가 봅니다. 섬이다보니 풍랑이 심할까 하여 걱정도 되고, 멀리서 들려오는 오르간 소리를 보니 애잔하고, 그렇네요.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저는, 문학을 가르치지만, 수능 문학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간결한 설명을 하기 위해 지금 저렇게 설명을 하긴 했습니다만, 사실 정지용의 이 시를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제게는 너무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각 연마다 대응되는 정서를 말씀드렸지요? 이걸 외우는 공부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납득해 보세요. 쉽게 말해 화자의 상황을 이해해 보시라는 겁니다.

오랜만에 여동생 연락 왔습니다.(물론 저도 여동생이 있습니다. 저는 여동생이 안부를 묻는 카톡 오면 읽고 씹거나, 안 읽고 씹습니다. 여동생 전화 오면 무섭습니다. 뭔 일 났나 싶어요. ~~저는 동생이 제 실장이라. 나중에 커서 동생이랑 일하지 마세요. 농담입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아무튼 당시 시대를 생각해보면 지금처럼 편하게 카톡이나 문자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저 멀리 강화도에서 정말 오랜만에 동생에게 소식이 도착한 겁니다. 그걸 받고 화자가 느끼는 복합적인 감정을 이해해보세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표현했는지를 이해하시면 이 시는 수능 전까지 까먹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립죠. 동시에 반가우면서 설레기도 하겠지요. 그러다보니 지금 당장 찾아가고 싶기도 하겠지요. 그러면서도 섬에서 살고

있는 여동생이 걱정도 되지요. 그러다 생각의 끝에는 결국 아련... 애잔... 해지는 거죠. 이 마음 이해되세요? 근데 그리워, 반가워, 걱정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걸 정지용 시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네가 남기고 간 기억만이 소곤소곤거리는구나', '반가운 마음이 울렁거리어 가여운 글자마다 먼 황해가 남실거리나니', '외따른 섬 로맨틱을 찾아갈까나', '날마다 밤마다 섬 둘레가 근심스런 풍랑에 씹히는가 하노니', '은은히 밀려오는 듯 머얼리 우는 오르간 소리' 한번 음미해보세요. 생각해보세요. 이걸 수능적으로는 화자의 복합적인 정서를 감각적, 회화적으로 표현했다는 말을 쓸텐데, 저는 그냥 딱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정말 세련됐다.(~~표현 개야르.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시를 이해했습니다. 오랜만에 멀리서 도착한 여동생의 소식. 화자의 복합적 감정. 그리고 이것을 정말 세련되게 표현한 시를, 제가 감히 수능 연계 수업한다고 정서 위주로 읽으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래도 문학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한번 이 시를 음미하고 이해해 보시라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5월' 이잖아요. 여러분들에게도 반가운 소식이 도착하길 바랍니다.(갑자기 라디오 DJ 같네요.)

(나)

겨울 숲에는 눈이 내리고 있다
도시에서 지금 돌아온 사람들은
폭설주의보가 매달린 겨울 숲에서
모닥불을 지펴놓고
대륙에서 불어오는 차가움을 녹이며
조금씩 뼛속으로 파고드는 추위를 견디며
자기 몫의 봄소식에 못질을 하고 있다
물푸레나무 숲을 흔드는
이 지상의 추위에 못질을 하고 있다

- 낯선 현대시입니다. 어차피 6평에도 이런 거 나옵니다. 실전에서 〈보기〉 읽고 들어가든, 그냥 읽든 그건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두 가지 버전으로 다 말씀드립니다. 제목 봤습니다. 땅의 사람들입니다. 이 의미가 뚫리면 시도 뚫립니다. 〈보기〉 안 봤으면 그냥 사람들? 뭘까? 하면서 일단 갑니다. 겨울 숲에 눈 내립니다. 심지어 폭설주의보입니다. 춥고 힘든 현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모닥불을 지피고, 차가움을 녹이고 추위를 견디며 못질을 합니다. 이 추운 계절(현실)을 견디고 버티고 있습니다. 이 정도는 〈보기〉 없이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보기〉를 읽고 갔다면, 제목 보자마자 가능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땅의 사람들 = 민중? 정도입니다. 물론 반드시 대응하면서 읽을 필요 없습니다만, 딱 각이 나오는 거죠. 겨울 숲에서 눈이 내리는 것은 당대 현실(민주화에 대한 열망이 좌절되었던 시대상)과 대응될 거고, 이 현실에 맞서는 민중들의 모습이 나타나는 게 이 부분이 됩니다. 결국 〈보기〉를 보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읽힐 수 있으니, 본인이 글의 추상성을 잘 못 견딘다, 그래도 명확한 게 좋은 분들은 맨 땅에 헤딩하는 거보다는 〈보기〉 보고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가까이 오라, 죽음이여

- 이게 보여야 합니다. 〈보기〉를 읽든 안 읽든. 대놓고 나오죠. 가까이 오라, 죽음이여 죽음도 두렵지 않다? 이런 느낌 아니겠어요? 내지는 죽음도 기꺼이 불사하겠다? 이런 느낌일 수도 있고요. 죽음에 초연한 자세를 보여 준다고 볼 수도 있겠지요.

동구 밖에 당도하는 새벽 기차를 위하여
힘이 끝난 폐차처럼 누워 있는 아득한 철길 위에
새로운 각목으로 누워야 하리
거친 바람 속에서 밤이 깊었고
겨울 숲에는 눈이 내리고 있다
모닥불이 어둠을 둥글게 자른 뒤
원으로 깍지낀 사람들의 등뒤에서
무수한 설화가
살아남은 자의 슬픔으로 서걱거린다

- 사실 새로운 각목으로 누워야 한다는 말의 구체적인 의미를 학생들은 알기 어려울 겁니다. 굳이 말씀드리면 새벽 기차 멈춰있고, 철길에 깔리는 나무가 아마도 새로운 각목이니까, 기차를 다시 움직이게 하고 싶은 거겠지요.(실전에서는 무슨 말인지 모를 수 있어요.) 여전히 눈이 내리지만, 사람들은 원으로 깍지를 끼고 있습니다. 그냥 그대로 읽으셔도 되고, 〈보기〉 봤으면 연대의식인가 하셔도 되는 겁니다.

내가 사는 집은 바다와 수백 리나 떨어져 있다. 그런데 어찌하여 '함해'라는 이름을 붙였는가.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니라 상상한 것을 이름으로 붙였다. 상상한 것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 수필은 처음이 당혹스러울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일단 차분히 읽읍시다. 필자의 집은 바다와 멀리 떨어져 있는데, 함해라는 이름을 붙였답니다. '함'자가 젖을 함자니까, 사실 바다에 젖은 집이라는 뜻일 텐데, 여러분들은 모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니라 상상한 것을 이름으로 붙였다합니다.(상상... 제가 요즘 가장 무서워 하는 단어 중 하납니다. 특히 상상 이모라는 분이요. 뭘 하실지 모르겠어서 너무 무서워요. 혹시 제가 당근을 흔들고 있다면...) 아마 실전에서는 그냥 읽고 지나가겠지만. 기억해주세요. '상상한 것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결국 이 답이 나와야 잘 쓴 글이 되는 겁니다.

(중략)

예전 영남을 유람할 때 동래의 해운대와 몰운대에 오른 적이 있었다. 몰운대는 지대가 바다로 돌출되어 있어서 양쪽으로 드넓은 바다를 끼고 있었다. 또 높이가 겨우 수 길에 지나지 않았다. 파도가 언덕을 때리며 굉음을 내기 때문에 말이 겁먹어 전진하지 못하고 뒷걸음쳤다.

몇백 보를 가면 땅이 끝나고 비로소 하늘과 바다가 끝없이 펼쳐졌다. 이윽고 해가 바다로 들어가는데 남은 햇살이 부서지는 금가루처럼 사방으로 퍼졌다. 드넓은 바다에 거센 바람이 불어와 쏴쏴 파도 소리가 요란하고 부서진 파도가 허공에 날렸다. 마치 비가 내리며 천둥이 치는 것처럼 순식간에 바다를 뒤흔들었다. 나는 마음이 상쾌해져서 근심이 싹 사라졌다.

몰운대에서 돌아와 대포진의 객사에서 휴식을 취하였다. 조금 있으니 달이 떠올랐다. 바다는 거울처럼 깨끗하였고 평온한 바다 너머 저 멀리 대마도가 보였다. 마치 잘 차려 놓은 잔칫상 같았다. 그야말로 장관이었다.

- 몰운대와 대포진에서 장관을 봤다고 합니다. 좋았대요.

나는 마음으로는 이 장관을 떠올리고 눈으로는 내 방을 본다. 이렇게 한참을 있다 보면 방의 네 벽에서 파도가 일어나는 것이 보인다. 마치 바다를 그려 놓은 벽지를 발라 놓은 것 같다. 이러면 저절로 마음이 탁 트이고 정신이 상쾌해져서 내가 좁은 방 안에 있다는 사실조차 잊게 된다.

자리에서 일어나 책을 마주하면 막힘이 없이 쾌활하게 읽혀서 마치 내 마음이 바다와 함께 푹 젖는 듯하다. 그러하니 예전에 보았던 몰운대가 지금의 내 서재가 되지 않겠는가. 지금 내가 사는 달팽이 집처럼 작은 집이 어찌 예전의 드넓은 바다가 아니겠는가. '서재가 바닷물에 푹 젖는다.'라는 의미에서 '함해'라고 이름을 붙였다. 엉터리가 아니며 참으로 괜찮지 않은가.

- 이걸 보고 방에서 장관을 떠올리면서 내 방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내 방에서도 파도가 보입니다.(확신의 ~~mbti N... 염상섭 두 출발 읽으면서 고깔참봉 나올 때마다 고깔 쓴 수염난 아저씨 이미지 떠오르면 당신은 N입니다.~~) 서재에서 책을 읽으면 마음이 바다에 젖는 것 같다합니다. 이것만 잡으면 완벽합니다. 몰운대가 내 서재가 될 수도 있고, 작은 내 집이 곧 바다가 될 수도 있겠구나를 깨닫고 이름을 함해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즉 실전에서는 여기까지는 하는 겁니다. 어? 내 집이 바다가 될 수도 있구나. 그래서 난 함해라고 할 거야. 아무리 못해도 이 정도는 읽으셔야 합니다. 다만, 여러분 독해력이 미쳐 날 뛴다면, 이것도 가능할지도.

몰운대와 대포진에서 장관을 봄(실제로 있는 것)
장관을 떠올리며 내 방을 봄, 파도가 보임(상상한 것)

나는 여기서 더 나아가 또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보았다. 저 동래의 바다는 내 눈에는 매우 거대하지만 불과 천 리를 넘지 않는다. 서쪽으로는 검산·미라도에 막혀 있고 동쪽으로는 대마도가 가리고 있다. 남쪽 바다에는 섬들과 안개와 구름이 아득히 보인다. 따라서 몰운대에서 본 바다는 바다 중에서도 작은 것이다.

- 여기서부터가 중요한 겁니다. 인식이 확장되잖아요. 사실 여기서부터 주제입니다.

그러나 나는 서재에서 책을 통해서 동서남북과 위아래, 우주와 고금에 이르기까지 뻗어 나갈 수 있다. 내 작은 서재에는 사방 천지의 드넓은 공간과 아주 먼 고대의 시간까지 담을 수 있다. 그러니 추연이 말한바 세상 밖에 훨씬 더 큰 세상이 있다는 구주(九州)조차 책에서 벗어날 수 없다. 책의 크기는 더할 수 없이 큰 것이 아니겠는가.

- 바다도 넓지요. 다만 서재에서 책을 읽으면, 세계관을 더 확장할 수 있지요. 서재에서 바다를 상상했듯, 책을 통해 더한 생각도 할 수 있으니까요. 쉽게 말해 바다보다 서재에서 책을 읽는 것이 더 큰 것이라는 인식을 잡으셔야 합니다.

바람을 타고 구만 리 장천을 날아오르는 커다란 붕새와 겨우 몇 자를 날아오르는 작은 메추라기를 견주어 보자. 소요(逍遙)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커다란 붕새나 작은 메추라기나 매한가지이다. 그러나 삼불후(三不朽)* 중에서 최상의 것은 덕을 확립하는 것이고 그 다음은 훌륭한 글을 남기는 것이다. 내가 바다를 본 것으로부터 도량을 크게 넓혀 나가 끝없는 바다에까지 이른다면 무엇이 이에 견줄 수 있겠는가.

- 결국 수필은 뒤로 갈수록 눌러 읽어야 합니다. 이게 주제입니다. '바다를 본 것'으로부터 '끝없는 바다'에까지 이른다면 무엇이 이에 견줄 수 있겠는가. 이게 최고다 이건데. 보이세요? 이 마지막 문장이 보이면 수필이 뚫린 겁니다. 아무리 못해도 최소한 글을 쓰거나 책을 읽는 게 최고다!는 하세요. 이건 기본이지만, 여러분들은 모두 똑똑하시니. 이 문장이 딱 보이면서, 아! 하면 끝나는 겁니다.

바다를 본 것(실제로 있는 것)
끝없는 바다에까지 이름(상상한 것)
단, 한 가지가 더 붙습니다. 어떻게 하면 끝없는 바다에 이를까요? 책을 읽고 글을 쓴다면. 이렇게 정리할까요?
바다를 본 것(실제로 있는 것)
끝없는 바다에까지 이름(책이나 글을 통해 상상한 것)

6평을 앞둔 여러분에게 저는 한마디 덧붙이겠습니다.
자, 여러분 꼭 '상상'과 함께 그 끝없는 바다에 이를 수 있길 응원합니다.

22.

표현상의 특징입니다. 사실 이 시기에 표현상의 특징이 오히려 헷갈린다고 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그건 오히려 공부를 하다보니, 애매하게 알게 되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긴 아는데, 아직 정립이 명확하게 안 되어서 오히려 답은 알겠는데, 다른 선지들이 눈에 밟히는 거죠. 이것도 맞을 수 있는 거 아냐? 뭐 이런 생각입니다. 일단 한가지 아셨으면 좋을 것은, 좋은 문제일수록 이것 역시도 아무거나 묻지 않습니다. 특히 기출이 자주 이렇지만, 주제와 직결되는 것을 많이 묻는다는 게 중요합니다. 결국 본인이 표현상의 특징이 헷갈리는 이유가 답이 안 보이는 거라면, 이건 사실 표현상의 특징이 아니라 중요한 내용을 놓친 겁니다. 이것 역시 답이 4번 선지인데

④ (가)와 (나)는 모두 호명의 방식을 사용하여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 (가)는 페스탈로치야, 꾀꼬리야 (나)는 죽음이여 이거잖아요. 근데 이거 다 중요한 내용인 거 아시겠지요? 페스탈로치야, 꾀꼬리야는 그리움의 대상을 호명한 거고요. 가까이 오라 죽음이여는 화자의 현실에 맞서는 태도를 보여 주는 내용입니다. 바로 주제와 직결되지요.

결론! 답이 안 보이는 경우는 시에서 중요한 맥락을 놓친 것일 가능성이 높다!
만약, 답은 알겠는데, 다른 선지가 헷갈려 고민하는 경우가 많다면, 이것은 기출 분석을 하면서 본인의 판단 기준의 일관성을 갖는 것이 답입니다.

23.

현대시는 해석의 적절성 판단입니다. ②~④는 시의 맥락으로 10초 컷 낼 수 있습니다. ①의 처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① ㉠의 '시시로'는 ~~'어린 나그네'와 대면하는 날이 다가오는 데 따른 화자의 기대를 부각한다.~~

- 대충 좋은 말이니까 맞겠지?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긍정/부정, 플/마 이것도 분명히 필요하지만, 이런 걸로 판정이 되는 선지들은 수험생들에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시시로 = 때때로입니다. '어린 나그네 꿈이 시시로 파랑새가 되어 오려니'라고 했습니다. 어린 나그네가 화자든 여동생이든 상관없어요. 꿈이 파랑새처럼 온다고 했습니다. 쉽게 말해 그리움이든 만나고 싶은 꿈이든 그런 마음이 파랑새처럼 온다는 얘깁니다. 진짜 대면하는 날이 다가오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실전에서는 하다못해 판단이라도 보류해야 합니다. 즉 ①을 답으로 찍지만 않으면 됩니다. 답은 ⑤가 확실해서 굳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24.

개잘냄!!!!!!!!!!!!!!!!!!!!!!!!!!!!!! 전 이런 문제 보면 흥분합니다. 수필 독해력!!! 수필을 얼마나 잘 읽었느냐에 따라 답의 선명도가 달라집니다. 혹시 본인이 ④가 잘 보였다! 수필 잘 읽은 겁니다. ④가 그럴듯했다 내지는 선명하지 않았다 하시는 분들은 평소에 수필 기출 돌리고, 사후적으로 분석하면서 피지컬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④ (다)의 '바다와 함께 푹 젖는 듯'하다는 것은, ~~관념적 지식보다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지식이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글쓴이의 입장을 부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자, 우린 주제 잡았지요? 그럼 딸깍!입니다. 그냥 정말 '딸깍' 이건 더 설명할 것도 없습니다. 이 수필의 주제는 결국 책을 읽거나 글을 쓰면서 세계관을 넓히는 것이 바다보다 더 큰 것이라는 겁니다. 아예 주제와 관련 없는 소릴 사실 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것! 최소한 이 수필의 주제가 책 읽기, 글쓰기의 중요함만이라도 잡혔다면 ④는 사실 아예 관련 없는 말이네라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25.

(나)시 맥락만 잡혀있으면 바로 ② 고를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시는 힘든 시대 현실 속에서 함께 견디고 버티는 땅의 사람들에 대한 얘깁니다. 가까이 오라 죽음이여를 통해 죽음에 대해 초연한 것도 알 수 있었죠. 심지어 버티고 기다리며 못질도 열심히 합니다. 네.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민중의 모습입니다. 딸깍!

26.

(나)시 맥락만 잡혀있으면 바로 ⑤ 고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문제 해설 보면서 오늘 따라 왜 이리 문제 해설이 간단해! 성의가 없네. 혹시 이러시는 분 있을까봐 말씀드립니다. 원래 문제가 깔끔하면 해설이 짧아요. 구구절절 말이 많아지는 건 사실 둘 중 하나입니다. 모의고사를 방어해야 하거나, 여러분들을 방어해야 할 때입니다. 이것도 깔끔하잖아요. 가까이 오라 죽음이여 하면서 깍지끼고 버티는 사람들입니다. 두려움은 아니죠. 딸깍!

27.

제가 볼 땐, 이 문제가 실전에서 여러분들한테 빌런입니다. 얘는 선지 판단 능력. 그러니까 수필 독해력만 갖고 안 되잖아요. 미시적으로 물어보는 건, 우리가 실전에서 사실확인 정확히 하면서 풀어야 돼요. 제 생각에는 ① 안 보이면 ⑤ 찍고 틀릴 가능성이 매우 높은 문제입니다.

① 바다에서 해가 지고 비가 내리는 자연 현상의 변화를 관찰하며 근심을 떨쳐 냈다.

- 사실 지문 돌아가면 파도가 치는 것을 비가 내리는 것처럼이라고 했으니까 비가 내리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 선지가 너무 그럴듯해서 그냥 확인 안 하고 내려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번거로워도 처음에 확인 제대로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즉 최초 판단을 좀 잘하면 사고가 안 날텐데 정도의 얘깁니다. ①을 못 쳐내면 ⑤가 끌릴 수밖에 없어요. 붕새와 메추리가 소요(산보, 슬슬 돌아다님)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같다는 건데, 이게 사실 그런 측면에서 그런 거지,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상식 선에서 받아들이기 쉬운 소리는 아니거든요. 결론! 사실확인 정확히 하자!

이번 주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최고의 해설을 여러분께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년 동안 이렇게 함께 흘러가다보면 내년 겨울엔 행복하리라 생각합니다.
나만 알고 싶은 강의에서 누구나 알고 싶은 강의가 될 때까지.
저는 국어를 가르치는 **이승모**입니다.

上昇線

상승선

상모택 이상

이 책의 저작권은 (주)이매진C&E의 소유이며,
허락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무단으로 복사, 복제, 제본
2차적 저작물 작성 등으로 이용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합니다.

상상국어평가연구소